



노주일 작 '오월의 눈물꽃'

오월정신 계승... 행동하라, 그리고 참여하라

오월, 문화로 피어나다 <1> 오월미술제

미로센터 라운지 '전문가 토크쇼', 무등갤러리 '오월전'
지역 갤러리들, 9개 연대 전시...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올해도 '오월미술제'가 곳곳에서 열린다. 그동안 30여 년간 '오월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미술 행사'를 이어온 오월미술제가 다양한 전시와 교류,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

올해 주제는 '내 삶의 주인으로서, 행동하라, 그리고 참여하라!'. 대내외적인 상황이 삶의 주체성을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주인의식이 필요한 시대인 터라 주제가 시의적절하게 다가온다.

이현남 총감독은 이번 오월미술제 의미에 대해 "시대적 배경을 차치하더라도 여전한 이분법적 사고의 결과들이 강도만 약해졌을 뿐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며 "삶의 주인으로서, 현실에 대해 마주할 용기 그리고 직접적인 참여와 행동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5월 한 달 동안 무등갤러리를 비롯해 미로센터, 5·18 민주광장과 연대전시장 9곳 등 광주 곳곳에서 행사가 진행된다. 제35회째 맞는 오월전 외에도 전문가 토크쇼, 광장(아고라)토크, 시민참여프로그램, 연대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오는 13일(오후 1시)은 미로센터 라운지에서

'행동하라! 이제는 미시적 폭력에 대항할 때'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크쇼가 열린다. 이번 토크쇼는 자칫 간과하기 쉬운 폭력과 인지하지 못한 순간에 발생하는 소소한 일상의 폭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토론자로는 신용철 부산민주공원 학예실장과 김정희 변호사, 윤수중 전남대 교수, 박성안 청년작가, 이현남 오월미술제 총감독이 참여한다. 이들은 5·18이라는 국가 폭력에 오늘날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파고드는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무등갤러리에서는 18일부터 24일까지 제35회 오월전전이 열린다.

오월미술제 주제에 현실과 상황에 대해 '마주할 용기', '직접적인 참여와 행동'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다.

특히 이번 전시는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등 모두 19명의 작가들이 함께한다. 작가들은 저마다의 작품을 통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의미'에 관해 이야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정의', '헌법 제1조', '종자 on society'와 같은 키워드를 제시한 전시장에는 아이패드 등을 통해 의견을 적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좀 더 넓은 소통의 장을 구현하도록 했다.

시민과 작가가 함께 광장에서 오월미술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도 예정돼 있다. 오는 20일 5·18 민주광장(오전 10시30분). 오월미술을 주제로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들 작품세계를 들여다보고 오월미술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해보는 시간이다.

이밖에도 광주지역 갤러리들의 기획자들이 준비한 '오월을 주제로 한 각종 연대전시'도 만날 수 있다. 모두 9개의 연대전시로 구성됐다.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되는 '오월미술, 시민과 만나다'를 비롯해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기획전실에서 열리는 '5·18 제43주년 오월특별전 '들불의 기록, 생동의 공간으로'', 5·18 기념문화센터 '이준석 오월 시·판화전 '검은 방'', 오월미술관 '이준석 오월 시·판화전 '칼과 꽃''이 있다. 또한 갤러리 생각상자 '그림책 원화전 '아버지, 엄마의 오

월이야기'', 메이플 '오월 어머니들의 그림농사', 비움 박물관 '트라우마센터와 함께하는 5·18특별 기획전 '별이 된 자들을 위하여'', 예술이 백그라운드 '5·18민주항쟁기념행사 청년특별전 '명백하다 봄'', 미로센터 갤러리 '동구park -민주주의 길'이 진행된다.

아울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전시 프로그램 '참여하라 그리고 행동하라'도 눈에 띈다. 의견 나눔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소정의 물품이 배부될 예정이다.

한편 김병택 오월미술제 추진협의회 회장은 "행동하는 양심"을 통해 양심 없는 이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줄 명확한 의지를 보여줄 때 세상은 조금씩 변해 갈 것이며 진정한 대동 세상도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태규 작 '항쟁의 불꽃'

80년 오월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아픔과 고통의 시간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그 상흔이 밀거름 되어
창조의 에너지로 승화되고 있다.
오월 정신을 기억하며
문화로 꽃피우는
다양한 문화현장을 만난다.

미술사학자 최열 초청강의 10일 광주시립미술관

미술사학자 최열(사진)은 근대미술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던 시절, 직접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려 연구의 터를 만든 장본인이다.

근대미술사 개척자인 동시에 실행자로 이후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와 인물미술사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미술사에 기여를 했다. 미술사학자 최열 초청 강의가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은 2023 미술관포럼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최열 미술사학자초청강의를 마련했다. 강의는 '광주시립미술관: 근대미술사와 미술관의 소명'을 주제로 열리며 오는 10일 오후 3시 광주시립미술관 세미나실.



이번 포럼에서 미술사학자 최열은 미술사에 있어 근대성을 비롯해 지역성, 미술관의 소명을 설명하고 미술관의 소명 중 '미술사 중심 기관'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포럼은 강의에 이어 참여자와 함께 자유로운 토론 시간도 진행된다. 지역미술관의 임무, 입문자를 위한 미술사, 지역 미술계 형성과 연구사 등을 주요내용으로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만보에게 딱 맞는 머리를 찾아라"

국립남도국악원, 13일 어린이 연희극 '만보와 별별머리' 공연

만보는 머리와 다리가 따로 태어난 아이다. 만보는 신장수와 함께 자신에게 맞는 머리를 찾아 길을 떠난다. 이 과정에서 만보는 원숭이 머리는 물론 사슴 머리, 금붕어 머리 등 다양한 생명체 머리가 되어보는 경험을 한다.

전통 탈춤을 바탕으로 자기에게 맞는 머리를 찾아 떠나는 만보의 방랑기를 그린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3일(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전남 진도)에서 어린이 연희극 '만보와 별별머리' (사진)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전통연희단체 광대생각 초청공연으로 진행되며 전통 탈춤을 새롭게 해석해 다양한 동물들의 탈을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남도국악원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나쁜 것을

쫓아내고 복을 불러들인다는 의미를 지닌 '사자춤'을 현대화한 작품으로 다양한 불거리를 제공한 다"며 "봉산탈춤, 북청사자놀음 등 한국 전통 탈놀이에서 등장하는 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공연 의미를 밝혔다.

진악당(공연장) 로비에는 올해 새롭게 조성된 전시공간이 조성돼 있으며 최첨단 IT 기법을 활용한 국악기 전시를 비롯해 재미있는 실감형 전시 콘텐츠와 국악기 음원 감상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무료 공연이며 진도 읍내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을 위해 12월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어린이 연희극 '만보와 별별머리'

'전남 사람책' 교육생 모집 전남문화재단, 9~19일

전남에 삶의 터를 내리고 있거나 살터를 옮겨 문화활동을 희망하는 예비문화기획자를 위한 문화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선출)이 진행하는 '2023 전남문화기획학교-전남 사람책'이 그것으로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2023 전남문화기획학교'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문화기획, 현장활동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내 기초문화재단 4곳(해남문화관광재단, 목포문화재단, 나주천연염색재단, 담양군문화재단)과 컨소시엄을 맺어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전남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기본과정을 80% 이상 이수한 교육생에게 지역문화진흥원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CC재단,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편9' 성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진행한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편9'이 성료됐다.

'함께 만들어요! 초록빛 도시'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서는 놀이를 비롯해 체험, 공연, 전시 등 모두 47종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특히 싱가포르, 터키, 몽골 등 3개국 4개 기관이 도시 문화유산과 언어, 음식, 악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아시아존을 운영해 인기를 끌었으며 광주관광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하나은행 등 국내 16개 기관이 참여해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축제 현장에는 모두

4만 6000여명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나무 자투리로 생태도시를 만들어보는 '야생아 놀이터', '함께 만들어요! 초록빛 도시' 등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이들이 만든 작품은 어린이창작실업실에 전시할 예정이다.

이번 하우편에서는 '하하하 하우편!'을 주제로 1분 이내의 소셜미디어(SNS)용 영상을 만드는 '우리가족 숏폼 챌린지' 영상 공모전도 진행됐으며 심사를 통해 총 7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작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주어지며, 시상식은 6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가볍게 지나칠 법한 일상 속 다양한 시선

화순 출신 왕광옥 시인, '먼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소!' 펴내

"그대 이름은 장미!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꽃꽂이 서서 피어 있구나. 너의 일 년 내내 중 마지막 단계인 초겨울, 그래도 이쁘구나. 나도 인생 접을 나인데 꽃꽂이 우아하게 서 있고 싶은데 계단에서는 잡고 올라가고 자꾸 의자에 앉고 싶어지고 어찌란 말이나"

화순 출신 왕광옥 시인이 세 번째 시집 '먼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소!' (생각나눔)를 펴냈다.



안에 넣을 수 있었어!..."

위 시 '석류꽃'은 석류에 대한 화자의 단상을 거쳐 체로 풀어진 작품이다. 화자는 오늘의 석류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잊지 말고 겸손하라는 뜻을 전달한다. 사실 석류에게 조금씩 이야기를 건네지만 그것은 오늘의 많은 이들에게 또는 화자 자신에게 이르는 경우일 것 같다.

왕 시인은 "이번 시집은 재미있으며 특히 사마천의 철학이 담겨 있어 지루하지 않다"며 "시와 전설 등을 고풍 융합해 직조했다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왕 시인은 '문장 21'로 등단했으며 시집 '이들의 지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이 있을지 몰라' 등을 펴냈다.

일상에서 또는 고전 등에서 소재를 삼은 이번 시집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 '먼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소!', 2부 '철새는 철새였을 때가 아름다운 것이야', 3부 '31층 아파트와 무당거미의 건축학', 4부 '충신은 버려져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꽃이 너무 이쁘고 다 익은 석류의 모습에선 / 웃고 있는 선인의 모습이 보인다 / 그래서 가까이 두는 과일이 되었고 과학이 발달 되자 / 높은 가치의 과일이 되었다 / 석류 너! / 개구리, 울챙이 적 생각 못 하면 안 돼 / 너 / 시고 뚱고 맛있는 과일이었어! / 너는 너를 잘 가꾸었기에 / 꽃을 열매를 울타리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